

분무기 대신 물티슈처럼 ‘뿜아서 소독’ ‘북한강 뷰’ 야외 테라스서 즐기는 커피

기업체부문 금상 [방역물품] (주)홈케어마스터 - 표면 코팅 향균 패드(티슈)

단 1회 사용 1주일간 99.9% 향균
KCL서 90일 흡입 독성시험 완료



코로나19 사태 속 소비자들의 주목도가 높았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향균’이다. 군·바이러스에 따른 감염 공포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 에스디랩코리아가 제조하고 홈케어마스터가 유통하는 표면 코팅 향균 패드 ‘스노우 더가드’는 단 1회 사용으로 1주일간 99.9%의 향균 상태를 유지하는 티슈 형태의 향균 패드다.

이같은 향균 효과는 ‘잡자리 날개’에서 비롯됐다. 잡자리 날개는 표면에서 미세한 스파이크가 형성, 오랜 시간 스스로 향균력을 유지한다. 해당 날개에 있는 향균 스파이크를 향균 패드에 접촉, 해당 패드로 제품을 닦으면 묻어있던 향균코팅솔루션이 표면을 코팅해 강력한 향균 스파이크 구조가 형성되는 방식이다.

향균 물질을 티슈 형태로 만드는 것 이기에 더욱 기술력이 필요하다. 향균

물질이 다른 곳으로 흩뿌려져 지속성, 안전성 등이 떨어지는 액체 분사형과는 달리 향균이 필요한 제품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향균 효과와 안전성,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티슈를 쓰듯 간편하게 톱 뿜아서 필요한 곳을 닦

아주기만 하면 돼 편의성도 높다.

환경부 허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제품으로, KCL에서 국내 유일 90일 반복 흡입 독성시험을 완료한 한편 미국 EPA 기준에 따른 6가지 동물시험을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기업체부문 금상 [핫플레이스] 카페 대너리스 - 카페 대너리스

포털 리뷰 4700건 ‘경치에 감탄’
빵·케이크·파스타 등 ‘입맛대로’



코로나19 사태 속 힐링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답답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전망 좋은 카페들이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맛 좋은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북한강 뷰’가 선사하는 탁 트인 전망, 엔터프라이즈 한 인테리어까지. 남양주 카페 대너리스는 이른바 ‘핫플’의 요소를 모두 갖춘 공간이다. 4층으로 이뤄진 대형 카페인데, 각 층마다 야외 테라스가 있어 강바람을 맞으면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한 포털 사이트에 카페 대너리스에 4천700여 건의 리뷰가 달려있는데 ‘뷰가 좋다’는 반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커피와 차 등 음료는 물론 빵과 케이크류를 다양하게 갖춰 소비자들의 입맛

을 다양하게 사로잡았다.

브런치 메뉴도 있는데 대너리스표 블랙퍼스트와 치킨·잡스테인크, 파스타 등이다. 북한강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벼운 식사까지 가능하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는 점도 카페 대너리스의 특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취약계층에 우측 사골 1천500박스를 후원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취약계층에 건강식품을 기부했다.

구도심 사로잡은 ‘젊음의 공간’ 수원 행궁동 베이커리 ‘입소문’

기업체부문 은상 [핫플레이스]

팔달제과 - 팔달제과 & 베이리데이



쇠락하던 구도심에 카페가 하나들 들어서더니, 어느덧 주말마다 청년들의 발길이 북적이는 젊음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행리단길’로도 불리는 수원 행궁동 카페거리 얘기다.

수원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이곳에서도 베이커리 카페 겸 레스토랑 ‘팔달제과 & 베이리데이’는 단연 눈길을 끄는 장소다.

4층 규모 건물인데, 1·2층에는 베이커리 카페인 팔달제과가 위치해 있다.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발효종을 사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커피 맛도 빠지지 않는다. 행궁동 카페거리 내 커피숍들은 대체로 매장 규모

가 작아, 주말에는 카페마다 커피 한 잔 마실 자리를 잡는 일조차 힘들었는데 팔달제과는 공간이 널찍해 보다 쾌적하게 커피와 빵을 즐길 수 있다. 베이커리 카페답게 빵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3층에 있는 레스토랑 베이리데이에선 수원의 대표 음식인 갈비를 사용한 이색적인 음식을 와인이나 맥주와 즐길 수 있다.

맛도 맛있지만, 식사를 한 후 바로 커피까지 마실 수 있으니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4층에는 루프탑이 있어 팔달산 풍광을 바라보면서 커피와 빵, 음식 등을 두루 즐길 수 있는데 맛과 감성 모두를 잡을 수 있다는 평이다.

반침대 앵커볼트 3개 아닌 1개 기존 시선유도봉 단점 없앴다

기업체부문 은상 [교통안전]

에스케이(주) - 시선 유도봉



시선유도봉(차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불법 유틸 등을 방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차량에 부딪혀 휘거나 깨지고, 더러워진 유도봉을 쉽게 볼 수 있다. 때로는 도로의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에스케이주식회사의 시선유도봉은 기존 유도봉의 단점을 보완해 탄생한 제품이다. 유도봉은 도로 면에 반침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봉을 올리는 방식인데, 다른 유도봉은 반침대를 설치할 때 앵커볼트를 3개 사용하지만 에스케이주식회사의 시선유도봉은 1개의 앵커볼트만 사용해도 도로 면에서 이탈

하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되는 게 특징이다.

유도봉이 차량에 받힐 때도 볼트가 이탈하지 않아,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잘 깨어지지 않는 원료를 사용했고 탄성이 좋아, 차량이 받았을 때도 깨지거나 휘어진 채로 방지되지 않고 곧바로 원상태로 복구된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점도 핵심이다. 기본 디자인이 우수한데다 오염되더라도 바로 청소할 수 있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새것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에스케이주식회사 측 설명이다.

170여개 브랜드 입점 ‘메가숍’ 기부·문예지원 상생도 ‘메가급’

기업체부문 은상 [지역 봉사]

(주)서부티엔디 - 인천 랜드마크 스퀘어원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복합 쇼핑몰 ‘스퀘어원’은 인천지역 최초의 복합 쇼핑몰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30여년간 터미널 사업 업계에서 1위를 달려오던 서부T&D가 운영하고 있다.

5층 규모로, 저층 단일 건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표방했는데 17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 ‘메가숍’이다. 웬만한 패션·뷰티 브랜드 매장은 물론, 다양한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다. 지하에는 홈플러스가 있어 생필품 구매 등이 가능하고 건물 내부에 CGV 영화관 및 공연·전시가 가능한 문화홀 등을 갖춰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스퀘어원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난 것은 해당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큰 쇼핑몰 이어서이기도 하지만, 꾸준한 지역 상생 활동이 한 몫을 했다. 매년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대표적인 게 지역민과 함께하는 ‘나눔미 바자회’ 활동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도왔다. 이 밖에 푸드뱅크, 연수구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복지 지원 활동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보육원을 찾아 청소년을 해주고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판로를 찾기 어려운 신진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홀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수라상 오르는 잣으로 빛은 술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1위 ‘명성’

기업체부문 은상 [전통주]

(주)우리술 - 가평 잣 막걸리

가평 잣은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났다. 이런 가평 잣을 이용한 막걸리가 맛있는 것은 당연할 터다.

주식회사 우리술의 가평잣막걸리는 2

년에 한 번 수확해 품질이 뛰어난 가평 잣, 계약 재배로 생산한 경기미, 가평의 청정 암반수만 사용해 특허받은 공법으로 만들었다.

기존의 쌀 막걸리보다 맛이 깔끔하고

고소하다.

가평잣막걸리를 만드는 우리술이 2013년 막걸리 업계 최초로 해삼(HA 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는 등 관리에 주력해온 점도 가평잣막걸리의 높은 품질이 유지되는 주된 요인이 됐다. 도수는 6도다.

홍천잣막걸리, 연인산잣막걸리 등 잣을 함유한 막걸리는 다수지만 그중 가평잣막걸리의 판매량이 가장 많다.

2018년 청와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간담회 만찬주로 선정되는가 하면, 2020년 쌀

가공품 품평회 톱 10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잣막걸리의 대표 제품으로 명성을 인정받았다.

지역과의 상생을 주도하는 제품으로도 유명하다.

12년째 경기미를 계약재배해 농가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올해는 가평잣막걸리 1병을 팔 때마다 우리술이 30원을 가평군 향토 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경기북부경찰청과 협력해 올해 6월부터 가평잣막걸리 병에 QR코드를 부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